

“아듀, 2017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여수의 밤을 6개월간 낭만으로 물들였던 2017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의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여수시에 따르면 2017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은 지난 4월 2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매주 금·토·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8개 공연장에서 8개월간 23만명 관람·257팀 750회 공연을 펼쳤다. 또 국내 실력과 가수 10팀과 해외 버스커들도 SBS 특집 공개방송을 통해 무대에 섰다.

후 종포해양공원 등에서 진행됐다. 참여한 버스커는 257팀 549명으로 이들은 25주에 걸쳐 총 750회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관람객 수는 지난해(17만여 명)보다 35% 늘어난 23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6개월간 23만명 관람·257팀 750회 공연
8월 ‘2017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도 개최

시는 올해 버스킹 공연장소를 8곳에서 5곳으로 축소하는 대신 댄스, 무용, 어쿠스틱, 풀밴드, 연주, 퍼포먼스 등 특화된 장르의 공연을 준비했다. 특히 국제 버스킹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버스킹 공연의 경험을 살려 ‘2017 여수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도 개최했다. 지난 8월 4일부터 3일간 열린 ‘2017 여수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에는 6만여 명의 관객이 참여하며

여수의 여름밤을 즐겼다. 페스티벌 기간 국내외의 16개 팀 50명의 버스커들은 종포해양공원과 이순신광장 등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다. 또 국내 실력과 가수 10팀과 해외 버스커들도 SBS 특집 공개방송을 통해 무대에 섰다. 시 관계자는 “한층 수준 높아진 낭만버스킹 공연과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로 시민과 관광객들을 다시 찾아뵙겠다”며 “아울러 지역의 버스커 육성을 위한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은 지난 19일 제7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올해의 페이스북 대상’을 수상했다. (왼쪽에서 두번째 김성계 행정지원과장)

장흥군, 올해의 페이스북 대상 수상

주민과의 대화 창구로 적극 활용·행사현장 라이브방송도

장흥군이 제7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올해의 페이스북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헤럴드경제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SNS 대상’은 SNS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19일 서울 LW 컨벤션에서 열렸다. 장흥군은 민선6기 출범 이래 주민과의 대화 창구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남진장흥물축제, 2016장흥국제통합의해박람회 등 지역 주요 행사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행사장 현장과 각종 프로그램을 생생한 영상으로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올해 ‘제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서는 릴레이 방송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활용해 현장감 있는 라이브 중계를 선보이고 30만 명이 넘는 누적 시청자수를 기록했다. 김성 군수는 “앞으로도 SNS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로 균형을 널리 알리는 한편 지역 특산물 홍보에도 적용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여수시, 귀농·귀촌 정보제공 ‘팜투어’

여수시가 귀농·귀촌 팜투어 ‘배우GO! 느끼GO!’를 통해 농촌 정착 희망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귀농·귀촌 팜투어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현장에서 진행된다.

시는 참여자들에게 농촌 생활여건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선도농장 현장견학, 선배 귀농인과의 만남 등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팜투어 참여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농촌진

오는 27~28일 ‘배우GO! 느끼GO!’ 팜투어
내일까지 여수시 농촌진흥과 참여 신청해야

흥과(FAX 061-659-5844)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에도 귀농·귀촌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팜투어를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농촌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예비 귀농·귀촌인에

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팜투어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해 여수시 귀농·귀촌인은 132세대 30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농협무안군지부 농협인 ‘한마음 상생대회’ 개최

농협무안군지부(지부장 조형규)는 지난 20일 무안을 불무공원에서 관내 조공법인 및 8개 농·축협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협인 한마음 상생대회를 다지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농협인 한마음 상생대회는 관내 농·축협 임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농협인과 지역민들에게는 다소나마 봉사의 기회를 갖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무안을 낚지골목 입구에서 불무공원까지 구간을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농·축협에 대한 현실적인 사랑과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농협인 임직원이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조형규 지부장은 “한마음 상생행사를 통해 농협내 소통과 상생은 물론 지역주민에 봉사하고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군, 귀농인 품목별 연구회 전문교육 실시

귀농·귀촌인 안정적 영농정착·우수 농업인력 양성



진도군이 귀농인 품목별 연구회 전문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23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9월

귀농인 품목별 연구회 전문교육 개강식을 개최한 후 9개 품목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교육 5회, 현장 벤치마킹 회를 진행하고 있

다. 지난 9월말에는 백진주 대표(미래농촌아카데미)를 초청, 가치를 담은 브랜드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전문교육은 귀농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조직된 품목별 연구회의 과제교육 학습범위를 생산기술 중심에서 품질관리, 가공, 유통·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농업기술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인 품목별 전문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농업경영,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진도 후계 농업경영인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송소희와 함께하는 힐링 음악회

내일 오후 장흥문화예술회관

장흥군은 24일 오후 7시 30분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송소희와 함께하는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 힐링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흥군이 주최하고 (주)아리랑엔터테인먼트 주관하는 이번 공연에는 소리꾼 송소희가 출연해 사랑으로 아리랑심포니와 호흡을 맞추어 예정이다. 예술의전당 교향악 축제에서 서윤시향과 협연한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지도 출연해 사르사테의 ‘카르멘 환상곡’과 ‘제고이네르비엔’을 선보인다. 아리랑심포니의 힐링 특별 음악

회는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융합시켜 특색 있게 구성했다. 유럽인들로 구성된 아리랑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아리랑을 인생의 고개에 비유해 클래식 댄스, 평화와 애수 추억과 그리움, 그리고 미래 장흥 등의 소주제로 나누어 무대를 꾸며낸다. 오케스트라 단장을 맡고 있는 전세일 박사는 “서양과 동양의 악기로 연주 될 우리나라의 전래 동요나 민요가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의 고향을 느끼게 할 것”이라며, “통합의회의 고장 장흥 군민들에게 더욱 특별한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